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의 이미지 그리고 현재 자아이미지와 미래 본인들의 보육교사 이미지를 수업(영화 분석지, 조별토론, 자아이미지 성찰지)과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현재 자아이미지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인식해 보는 기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들은 현재 자신의 자아이미지가 보육교사직 선택에 대한 갈등 중이며,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어진 자아이미지, 열심히 보육교사직을 준비 중이지만, 불안한 자아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자점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위한 자신의 자아이미지를 위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은 스스로 자아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보육교사직을 희망하고 있기에 앞으로 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자아이미지를 위해 현재시점에서 구체적인 실천들을 계획했으며, 더 나아가서 미래에 만나게 될 동료 보육교사들과 함께 보육교사의 올바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으로까지 자아이미지가 성장하고 변화되었다. 한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실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존중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교사교육자의 역할이었다. 이는 교사교육자인 본 연구자에게도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다. 예비보육교사들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교사교육자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수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도 재인식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가르침과 돌봄이 핵심어가 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교사교육자인 연구자가 먼저 모범으로 실천해야함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예비보육교사
(Pre-Service Preschool Teacher)
자아이미지(Self-image)
보육교사 이미지
(Preschool Teacher's Image)

* 본 논문은 2018년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부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yhy@bu.ac.kr)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자아이미지 탐색연구*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Image of Childcare Center Teachers and Self-image

양혜영¹⁾
Hea young Yang

I. 서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져서 엄마가 편입해서 다른 전공을 공부하라고 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어려서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요...

앞의 글은 보육교사직을 희망했던 아동복지전공의 대학교 2학년 학생과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학생의 발표를 듣게 되었고, 이들의 고민은 연구자의 고민이 되었다.

두 명의 친구들에게 “보육교사 하면 뭐가 떠올라?”라고 물어보았을 때 한 친구는 “학대?”라고 대답하였고, 다른 친구는 “힘들기만 할 것 같아”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보육교사들의 현신보다는 학대사건을 먼저 떠올리는 점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친구의 말에는 저도 공감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육교사가 ‘그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습니다(보육교사론 수업 중 ‘보육교사가 되고자 했던 개인적인 동기와 나의 보육가치관과 신념’이라는 주제로 개인발표 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

그리고, 한 학생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의 동영상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발표하였을 때는, 순간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경악하는 모습과 함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한탄소리가 있었다.

이때, 연구자의 시선에 여러 학생들은 아예 그 동영상을 시청하지도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토론 시간에 학생들은 그 동영상으로 본인들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일이지만, 동영상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피하고 싶은 내용이었다고 했다. 최은정과 곽은순의 2017년 연구인 “신문과 TV 뉴스에 나타난 보육교사의 신뢰이미지 분석”에 의하면, “보육교사들은 능력이 미약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p. 111)”고 하며, 아동폭력을 행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도들은 일반인들이 보육교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인성적인 측면을 위반하기에 치명적으로 호감도가 급감하고, 보육교사의 이미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일삼는 보육교사’의 이미지가 혹시 ‘스트레오 타입(stereotype)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 심해보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육교사의 뉴스가 “나 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이훈희, 황병순, 2015, p. 9)”되고 있는 상황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도되는 보육교사 이미지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대상은 서론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현재 보육교사직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예비보육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직교육과정인 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취업과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육교사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윤리성과 전문성 외에도 이제는 외부에서 인식하는 보육교사 이미지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를 할 수 있는 사고능력배양과 성찰의 과정을 교사교육양성과정에서 제공해주어야 한다. 올바른 보육교사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타인의 시선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보육현장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사교육과정에서 올바른 교사의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회와 맥락을 제공해 주어야(김대옥, 2014)하며, 불안해하는 예비보육교사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구체적인 수업모형들을 교사교육자가 수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국립국어원(2018)에 표기된 이미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 부터 받는 느낌으로, 심상, 영상, 인상이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서 이미지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힘과 역할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가변적이지만(박은혜, 조운주, 2007) 이미지가 갖는 힘은 매우 크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지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미지 추락의 결과로 한순간에 사람의 평판이 결정되는 사건과 보도들을 통해 체감하고 있다. SNS 세대를 살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은 외현적인 시각적 이미지에도 민감하지만, 사회적 평판이나 타인의 평가가 반영된 특정 직업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에도 매우 민감한 편이다. 교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손원경, 김미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이 갖고 있는 교사에 대한 이미지 안에는 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교사의 행동에 대한 평가적 역할을 갖는다고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좋은 이미지가 축적되면(조형숙, 김정숙, 2011) 교사의 고유한 이미지로서 정착되어서 교직선택과 직업만족도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더불어, 교사이미지는 교사가 내면적 사고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태도의 집합체(유지영, 2004; Minor, Witcher & James, 2002; Ng, Nicholas & Williams, 2010)이며, 교사의 자아개념에서 시작되어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구체적인 교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황해익, 김미진, 김병만, 2012; Berthelsen & Brownlee, 2007)이 되기도 한다.

교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유치원교사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와 관련된 이미지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김대옥, 2014; 김은아, 2017; 류철선, 이성희, 2005; 박영미, 이순자, 2014; 박은혜, 조운주, 2007; 신진호, 2007; 서현, 이승은, 2013; 조형숙, 김정숙, 2011; 정명숙, 황해익, 2010; 황해익 외, 2012).

예비보육교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보육실습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김나림, 광경화, 2013; 박은주, 2016; 오선영, 이옥임, 2006; 윤숙현, 2009; 하지영, 김양은, 2016)되어왔으며,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은 보육실습 전과 후에 변화된 보육교사 이미지 관련연구들(강문숙, 김두규, 2017; 김정원, 조혜선, 2012; 이서영, 양성은, 2017)이 있다. 이외의 연구로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보육교사이미지 관련 연구들 즉 유아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 유형(김병만, 김미진, 2013), 일반인이 바라보는 보육교사 이미지(손원경, 김미진, 2016), 보육시설기관을 이용한 부모가 바라보는 보육교사 이미지(이훈희, 황병순, 2015), 그리고 신문과 TV뉴스에 나타난 보육교사 이미지(최은정, 곽은순, 2017)의 연구들이 있었다. 예비보육교사

의 이미지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로는 ‘신입생 예비보육교사들이 인식한 보육교사와 원장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신세니, 오정희, 2016)가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볼 때, 예비보육교사의 이미지인식과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가장 민감한 졸업과 취업을 앞둔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인식과 스스로 성찰한 자아이미지에 대한 연구, 특히 그 탐색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질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보육교사들의 이미지와 관련된 내면적인 이야기와 개인적인 신념, 교사상 등을 듣고자 이미지(영화)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자아이미지를 분석해보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아이미지는 교사상으로 연결되고 실제 교수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김양은, 하지영, 2015; 신건호, 2007) 요소이며, 또한 자아이미지가 건강하게 구축되어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부당한 평가에는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보육교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들을 면밀하게 탐색해나가는 과정자체가 이미지를 숙고해보는 성찰과정이 되어서 예비보육교사들에게는 교사직의 진입시기 이전에 보육교사로서의 신념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예비 영유아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12년째 교사교육 현장에서 바른 인성과 참다운 실력을 갖춘 보육교사들을 돕는 일에 많은 보람을 느껴왔는데, 현재는 보육교사 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 이는 예비보육교사들 스스로가 이미지를 분석해보고, 본인들의 자아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수업적 맥락에서 제공해주는 일로 이어졌다. 예비보육교사들의 직접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교사교육자들에게는 예비보육교사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져서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설계를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 그리고 현재 자아이미지와 미래 본인들의 보육교사 이미지가 수업(영화 분석지, 조별토론, 자아이미지 성찰지)과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어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2. 예비보육교사로서의 현재 자신의 자아이미지는 어떠한가?
3. 예비 보육교사로서 미래를 위한 자신의 자아이미지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아동복지전공과 유아교육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연구자 자신인 교수 1명과 A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아동복지전공 학생(14명)과 아동복지와 교직을 복수전공하는 학생(5명)으로 총 19명이다. 2017학년도 2학기에 ‘보육교사론(수강생 총 37명)’과 ‘아동미술(수강생 총 24명)’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응답한 학생들 25명 중 연구동의서를 제출한 19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서 사용되는 목적표집으로 ‘보육교사론’과목과 ‘아동미술’수업을 동시에 수강한 학생들만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의 이미지 작업분석을 아동미술 시간에 영화로 선정하여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17년 2학기에 ‘보육교사론’수업을 수강한 37명의 학생 중에서 ‘아동미술’수업을 같은 학기에 함께 수강하고, 연구동의서를 제출한 19명만이 연구 참여자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과 다음과 같다.

2. 연구 절차

1) 연구 기간

2017학년도 1학기에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하여 1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소요시간 및 타당도와 그 외 문제점 등을 수정하였다. 이후, 2017년 2학기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절차에 대한 안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에서 이름이 가명으로 처리된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학년	전공	성별	보육실습경험의 유·무	보육실습기관의 유형	보육실습기간
연구 참여자 1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2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3	3학년	교직복수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4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5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6	3학년	교직복수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7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8	3학년	교직복수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9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10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11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12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13	3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무		
연구 참여자 14	4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유	국공립어린이집	2017년 1학기
연구 참여자 15	4학년	교직복수전공	여	유	국공립어린이집	2017년 1학기
연구 참여자 16	4학년	교직복수전공	여	유	직장어린이집	2017년 1학기
연구 참여자 17	4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유	국공립어린이집	2017년 1학기
연구 참여자 18	4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유	민간어린이집	2017년 1학기
연구 참여자 19	4학년	아동복지전공	여	유	직장어린이집	2017년 1학기
총 19명						

다는 것과 연구를 거부할 경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는 학술적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안내하였다. 연구절차는 보육교사론 시간에는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별토론(2회)을 하고, 자아이미지에 대한 성찰지를 작성하게 됨을 알려주었다. 명화분석은 아동미술시간에 명화에 대한 수업이 후, 본인의 현재 예비보육교사로서의 자아이미지가 투영되었다고 느끼는 명화를 한 장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시간은 수업시간의 3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미래의 보육교사로서의 본인의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명화 분석 작업은 아동미술 시간에 미래의 보육교사로서의 자아이미지가 투영되었다고 느끼는 명화를 한 장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시간은 이

역시 수업시간의 3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심층면담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었다(소요시간과 만남의 장소 등).

3) 심층면담의 내용

심층면담은 1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당 1회의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유의사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연구자의 연구 저널에서 도출된 연구와 관련한 질문과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발표와 질문을 들으면서, 새로이 알고 싶은 내용들과 수집한 자료의 내용분석을 위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로이 자아이미지와 명화분석지에 대한 견해 등을 이야기할 경우는 연구 참여자의 견해에 대하여 다시 자세한 질문을 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료분석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들은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심층면담의 약속한 시간이 20-30분인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연구 참여자들이 대다수였다. 이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보육교사직과 보육교사의 이미지 그리고 본인들의 보육교사직 선택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론되어진다. 또한 교사교육자와 일대일로 만나서 공통의 관심 주제(보육교사 이미지)를 심도 있게 대화로 나누는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느낀다고 표현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질적 연구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나,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층면담 시에 유목화된 주제어와 하위주제어들을 연구대상자에게 보여주고,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재분류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별도의 표(아래 표 2 참조)를 만들어 정리하는 유목화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하위범주의 연구결과들(3개의 범주에 각각 3개의 주제로 총 9개의 하위범주가 포함됨)을 도출하였다.

표 2. 주제어의 범주화

예비 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	대중매체 (TV 혹은 SNS, 뉴스보도 등)에서 접한 이미지로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체험들로 형성된 보육교사 이미지	자신의 꿈으로 간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이미지
예비 보육교사로서 현재 자신의 자아이미지	보육교사 직업 선택에 대한 갈등과 방향중인 본인의 자아이미지	보육교사직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자아이미지	현재는 열심히 보육교사직을 준비하는 중이지만 불안한 자아이미지
예비 보육교사로서 미래를 위한 자신의 자아이미지	정말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보육교사직을 희망하는 자아이미지	본인의 건강한 자아이미지 구축을 위해 현재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자아이미지	미래에 만나게 될 보육교사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 자존감과 건강한 보육교사 이미지 구축에 동참하려는 자아이미지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아이미지를 투영한 명화 분석지(A4 용지 76장 분량)와 면담 전사모음 자료(A4 용지 83장 분량), 그리고 조별 토론회(A4 용지 59장 분량)였다. 이외에도 연구자 저널 노트 1권이 있다. 아동미술 시간에 진행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콜라주 작업’의 자료수집과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으나, 연구 참여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콜라주 작업’의 의미를 명화 분석지에 기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되고 정리된 자료들은 연구시작 시점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출력해서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 유사한 주제어 선정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일단 분류하였다. 즉 전체자료 수집 후, 연구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들은 삭제 분류하고, 심층코딩의 작업을 통해 세 가지의 범주아래에 9가지의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4. 타당성 검증 및 연구윤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아이미지를 투영한 명화 분석지 자료 수집, 조별토론 참여관찰, 심층면담, 연구자 저널, 조별토론회 분석의 총 5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삼각검증을 하였다(조용환, 2004).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층 면담시에 ‘참여자 확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결과 자료를 2부를 복사하여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읽어가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갖었다. 참여관찰은 조별 토론회와 학과소모임(본 연구자는 2017년 2학

기까지 우쿨렐레 소모임 지도교수였음)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했으며, 이는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동료 교수 2인과 연구 분석 내용 및 결과들을 함께 점검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예비보육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보육교사이미지를 조사했으며, 조별토론으로 의견들을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예비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현재 자아이미지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인식해보는 기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들은 현재자신의 자아 이미지가 보육교사직 선택에 대한 갈등,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어진 자신의 이미지, 열심히 보육교사직을 준비 중이지만, 불안한 자아이미지를 솔직하게 인지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위한 자신의 자아이미지 명화분석과 성찰지 작성, 심층면담을 통해 예비 보육교사들은 스스로 자아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었다. 정말 힘든 직업이지만 그래도 보육교사직을 희망하고 있기에 앞으로 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자아이미지를 위해 현재시점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는 것과 더 나아가서 미래에 만나게 될 동료 보육교사들과 함께 보육교사의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으로까지 자아의 이미지가 성장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의 이미지

1) 대중매체 (TV 혹은 SNS, 뉴스보도 등)에서 접한 이미지로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

보육교사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발표를 하다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졸업 후 보육교사가 될지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봉사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갔는데요, 한 아저씨가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이 선생님은 너희들 안 때리지? 라고 하셨어요. 이젠 아이들하고만 있어도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투로 말씀하시는데....교사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졸업 후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비보육교사들은 대중매체에서 보도된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연구결과에서도 밝히고 있었다.

‘아동학대’문제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가 현재 제게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뀔수록 심해지는 ‘아동학대’ 문제로 보육 교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존경 받을만한 교사 분들도 많을 텐데요..아동학대 교사들 때문에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들처럼 보육교사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이미지는 예전에는 아이들 좋아하고 사랑 많고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였지만,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항상 예의 주시 해야 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17. 9. 18. 연구 참여자 19와의 심층면담)

지금 보육교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동학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이 보육교사라고 말하면 ‘너도 나중에 선생님 되면 아이들 때릴 거야?’ 라고 아무 생각없이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몇몇 보육교사 때문에 예비보육교사인 나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 9. 25. 연구 참여자 12와의 심층면담)

나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육교사에 대한 생각을 듣게 되었다. 보육교사 취득을 위해 학사과정을 밟는 나와 달리, 보육교사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육교사를 단지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두려움과 보육교사를 향한 불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들을 영유아와 놀아주는 사람으로밖에 인식하지 않으며,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무시하곤 한다. 보육교사직업은 힘들지

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 10. 30. 연구 참여자 5의 자아이미지 성찰지)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중매체에서 접한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견해가 많았다. 이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인으로서 보육교사직을 수행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예비보육교사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교사교육 양성과정에서 현장에서 보육교사직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사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 선배 보육교사들을 초청하여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긍정적인 이미지의 보육교사들의 실제 사례들을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자신이 직접 경험한 체험들로 형성된 보육교사 이미지

예비보육교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기억들을 보육교사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정하고 따뜻한 이미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살핌과 가르침으로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의 이미지, 헌신적인 이미지, 사랑을 베푸는 보육교사,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닌 보육교사의 이미지 등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내재화하여 본인들도 미래에 이러한 동일한 이미지를 지닌 교사상을 구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엄마와 아빠 모두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 가정 속에서 자랐던 저는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지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비록 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은 다른 친구들보다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불임성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다정하고 따뜻한 이미지입니다. (2017. 9. 25. 연구 참여자 14와의 심층면담)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직업들을 찾아보고 인적성검사도 해보면서 늘 중복하여 나오는 직업이 아이

들을 돌보는 직업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오셔서 어린이집에서의 일들과 아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로 들어서인지,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헌신적인 보육교사이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2017. 9. 18. 연구 참여자 18과의 심층면담)

나는 영유아들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을 사랑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다시 전해주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꿈꾸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어린이집 교사 보조로 영유아 곁에 있으면서, 영유아들의 순수함이 기억에 남았다. 영유아들이 처음 보는 나를 좋아하며 끊임없이 나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해주었다. 자존감이 낮던 나는 영유아들을 통해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 영유아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주고 싶어졌다. (2017. 10. 30. 연구 참여자 1의 자아 이미지 성찰지)

연구결과 예비보육교사들이 직접 경험한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보육교사 이미지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도되고 있는 보육교사이미지와는 다르게 예비보육교사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보육교사의 이미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육교사직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자신의 꿈으로 간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이미지

'똑똑한 보육교사이미지, 영유아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보육교사이미지, 영유아의 순수함으로 인해 행복한, 영유아로 인해 즐겁게 웃는 보육교사의 이미지, 아이들에게 배우는 교사, 아이들의 정서적 환경을 지원해주고 꿈을 키워주는 교사' 등의 이미지는 예비보육교사들이 본인들의 꿈으로 간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이미지들이다. 자신의 꿈으로 간직한 보육교사의 이미지들은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선행연구(김정주, 윤정진, 2011)의 보육교사의 이미지인 '밝고, 상냥하고 헌신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기에 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선행연구는 외부에서 인식

하는 보육교사의 외현적인 느낌의 이미지라면, 본 연구에서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본인들의 교사상과 연결된 이미지이기에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제가 되고 싶은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똑똑한 보육교사입니다. 지금 소모임 활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 어린이집 봉사를 다니면서, 어린이집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한 추억들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육교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후, 어린이집 봉사를 갈 때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자료, 환경구성 등을 잘 관찰하며 내가 나중에 보육교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구상해보며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017. 11. 27. 연구 참여자 17과 의 심층면담)

대학을 오기 전에는 영유아들은 항상 기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유아들을 만나면서 나의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어둡고 아픔이 있는 유아들도 있음을 깨달았다. 영유아들이 모두 순수해서 자신의 가정환경이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또래관계에서도 소외 받는 유아가 있음을 목격하면서, 아직 5-6년 밖에 살지 않은 어린 영혼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보육교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것이 나의 꿈이다. (2017. 10. 30. 연구 참여자 10의 자아이미지 성찰지)

내가 먼저 좋은 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제게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배우는 교사의 모습이 저의 보육교사 이미지입니다. (2017. 11. 27. 연구 참여자 15와의 심층면담)

연구에 참여한 예비보육교사들의 꿈으로 간직한 보육교

사의 이미지들은 교사교육자인 연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루고 싶어 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실현하도록 돕는 직전교육 수업설계에 대해서 교수자인 연구자가 더 많은 반성적 성찰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비보육교사의 다짐으로 본 보육교사상에 관한 연구”를 한 김양은과 하지영(2015)의 연구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예비보육교사 시절에 인식한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이미지가 보육현장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과정 내용과 실천적인 측면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예비보육교사로서의 현재 자신의 자아이미지

연구자가 특별히 주목한 연구결과는 예비보육교사들의 현재 자아 이미지였다. 자아 이미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게 되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의 집합체로서, 자아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의 본질로서 행동방향을 결정”(조형숙, 김정숙, 2011, p. 408) 하게 되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들이 보여준 중요한 점은 예비보육교사들이 현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의 과정이 보육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1) 보육교사 직업선택에 대한 갈등과 방향중인 본인의 자아이미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재 이미지를 보여주는 명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명화로 자아 이미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다소 추상적이고 머릿속에 있던 혹은 무의식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교수자인 연구자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예비보육교사들의 갈등과 방향,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사라져가는, 그리고 불안감을 드러내는 이들의 현재 자아이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어 수업과정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정(보육교사론 수업에서 자존감 관련 강의를 추가)을 갖게 되었다.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즈음부터 그전까지 확고했던 진로에 대해 망설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길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길인지, 나

의 미래가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이 ‘까마귀가 있는 밀밭’을 보는 순간 확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이 명화가 나의 현재 자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우선 세 갈래의 길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밀밭에 어디로 가야만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세 갈래의 길이 마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려 갈팡질팡하는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2017. 9. 26. 연구 참여자 11의 명화분석지)

일단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불합리하고 여러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잘하고 있는 보육교사들까지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직장에서 평생 이 직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보육교사의 길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졸업을 앞두고 보육교사의 직업선택을 두고 갈등이다. 보육교사가 하기 싫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고민하는 일조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다. (2017. 10. 30. 연구 참여자 9의 자아이미지 성찰지)

이제는 한번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는 말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나에게 아직 한번 직업은 평생 직업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갖는 직업이 보육교사라고 결정하게 된다면, ‘한번 해보자!’라는 자신감 넘치는 생각이나 긍정적인 느낌 보다는 ‘이 길이 괜찮을까? 나에게 진짜 맞는 걸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의 느낌이 더욱 큰 것 같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보육교사가 나의 꿈이긴 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될 날이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와서 부담이 되는 건지, 보육교사가 되어서 내가 실수는 안하고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인지 명화 속 여인과 같이 웅크린 자세

로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과 초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여인의 눈과 우울한 정서가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2017.9. 26. 연구 참여자 8의 명화분석지)

심층면담을 통해서 한 학생이 “차라리 본인의 직업진로를 누군가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보육교사직 선택에 대해서 갈등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직의 전문성에 대해서 재인식과 재개념화의 과정이 필요(강문숙, 김두규, 2017)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보육교사직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자아 이미지

예비 보육교사들은 그동안 걸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속내를 명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아이미지 성찰지에서 솔직히 고백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이들의 자아이미지는 교사양성과정수업에서 교사교수자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상 마음속으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를 보며 속으로 부럽기도하고, 남들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혼자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하다.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내 머릿속을 뒤덮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명화분석작업을 하면서 나의 바닥난 자존감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는 교사로서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2017. 9. 26. 연구 참여자 2의 명화분석지)

현재 나의 자존감은 낮다, 보통이다, 높다 이 세 가지 중에 택해야 한다면 낮다를 선택할 것이다. 솔직히 실습 전 필수과목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좋은 보육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실습 전 필수과목을 들으면서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고, 모의수

업을 준비하면서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물론 처음이라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나의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들을 보며 점점 두려움이 커졌고 자존감도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2017. 10. 30. 연구 참여자 1의 자아이미지 성찰지)

많은 명화들 중에서도 ‘아들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명화가 나에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이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다. 예비보육교사인 현재의 나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 명화이다. 예비교사의 이미지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명화를 비교하자면, 일단 어두운 밤하늘은 나의 걱정, 고민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 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정말 많다. 그것들이 모아져서 고민이 되고 걱정들로 변해간다. 마음만 급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시간의 여유도 많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심감도 줄어 들고 자괴감도 많이 드는 것 같다. (2017. 9.26. 연구 참여자 14의 명화분석지)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면밀히 주목하여 발견하게 된 점은, 연구 참여자인 예비보육교사들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지나치게 자아이미지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감부족이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들(다른 친구들과의 비교, 높은 성적에 대한 기대치, 초조함과 자세히 살펴 보지않은 고민과 걱정, 교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등)은 향후 심층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함께 논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연구결과로 도출하게 되었다.

3) 현재는 열심히 보육교사직을 준비하는 중이지만 불안한 자아이미지

본 연구 참여자들인 예비보육교사들은 “현재는 열심히 전공 공부 외에도 이것저것 찾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제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하고...전공 수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견게 될 길인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과 불안감이 앞선다...현재 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마음만 불안해지고 조금해져서 차라리 내가 아닌 타인이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등의 불안감을 현재 자신의 자아이미지로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보육교사가 되고자 마음먹기 전에는 아동상담가가 꿈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을 실제로 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이해하며 위로해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동복지학전공을 선택하여 전공 설명회에 참석하고 보육교사와 관련된 전공과목을 수강하면서 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그만큼 유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나를 열심히 전공 공부 외에도 이것저것 찾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제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주위사람들은 제게 너는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오히려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저의 불안한 마음과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11. 27. 연구 참여자 11과의 심층면담)

이 명화는 내가 명화퍼즐을 사러 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봤던 명화였다. 내 눈에 이 해바라기가 물이 부족해 보였고 시들기 직전의 상황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뭔가 지쳐있고 말라 있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 모습뿐 아니라 나의 속 마음까지도 닮아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 명화를 분석해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내가 시들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현재 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지쳐 있는 내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졸업이 다가와서 걱정이 너무나도 많고 불안한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2017.9. 26. 연구 참여자 4의 명화분석지)

박수근 작가의 나무와 두 여인이란 작품을 처음 보고 정 중앙에 그려져 있는 나무가 가장 시선을 끌었다. 명화에 대한 설명을 보니 나뭇가지가 잘리기도 하고 잔가지가 자라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읽고 명화 속 나무가 사람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하며 명화를 보다 보니 지금 예비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나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과제와 실습준비를 하고 있지만, 잘린 나뭇가지처럼 보육교사가 나랑 안맞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로인해서 불안하기도 하다. (2017. 9. 26. 연구 참여자 3의 명화분석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불안한 자아이미지를 드러낸 예비보육교사들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론 과목에서는 ‘보육교사직 선택’에 관련된 주제들을 단순히 강의전달식이 아닌, 보다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강의해야 함을 함의하는 연구결과이기도 했다. 소그룹토의와 저널쓰기와 같은 성찰의 과정(안소영, 2012)을 보육교사론 과목에서 구체화하여 실행한다면 예비보육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예비보육교사들이 지닌 불안함에 대하여 소그룹토의가 이루어진다면, 불안한 개별자의 모습에서 서로 불안의 원인을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토론하고 강구해보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향후 예비보육교사들의 건강한 자아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예비보육교사로서 미래를 위한 자신의 자아이미지

1) 정말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보육교사직을 희망하는 자아이미지

누구나 스스로의 이미지를 직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의도적인 시도 없이는 당연하게 여기던 인식을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예비보육교사들은 미래를 위한 자신의 자아이미지를 선택하는 작업을 통해서 미래의 보육교사 이미지를 구축해보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보육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본인들의 교사로서의 실천 지향점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그래도 보육교사직을 선택한 이들의 자아 이미지에서는 호수에 비친 마을의 불빛, 든든한 버팀목, 더 빛나고 아름다운 나무라는 단어들과 “명화 속의 언덕 위에서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고 등 뒤로 햇빛을 받으며 사색에 잠겨있는 여인의 모습이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교육을 유아들에게 제공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기술한 내용에서 희망적인 자아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졸업 후 현장에서의 나의 보육교사 이미지는 명화에서처럼 활짝 핀 꽃을 품은 나무가 내 모습일 것 같다. 앓은 가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없지만 그래도 꽃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나를 의미하고 그 가지에 핀 꽃은 우리 반에 있는 영유아로 비유하고 싶다. 나는 가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고 아이들은 나의 애정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무는 꽃과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보육교사인 나의 이미지는 아이들과 함께 일 때 더 빛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7. 12. 5. 연구 참여자 15의 명화분석지)

이 명화의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처럼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이미지를 지닌 보육교사가 되고 싶다. 요즘 아이들이 전자기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스마트 폰과 텔레비전을 보고 자연을 느끼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화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이들이 새와 자연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자연친화적인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다.’ 생각과 맞아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보육교사 이미지가 이 그림으로 나타나있는 것 같다. (2017. 12. 5. 연구 참여자 7의 명화분석지)

3년을 배웠어도 배우고 싶은 내용들은 아직 많고 아무리 배워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모네는 배 위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물 위에 풍경에 집착했습니다. 하나의 직업 속에서도 다양한 장르나 자신만의 특기, 강점이 있는 것처럼 보육교사라는 직업 속에서 저도 저만의 장르와 색깔을 찾아 그것을 재창조하고 끊임 없이 연구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저의 미래의 보육교사이미지로 반영해보고 싶은 이유는 유명한 모네조차도 자신의 이상을 탐구하고 관찰하여 전문가가 된 것처럼 저 또한 그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콜라주 작업을 하면서 저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그림과 영화, 여행, 동물을 좋아합니다. 보육교사가 되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저만의 교육철칙을 만들고 보육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단번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겠지만, 노력과 탐구를 통해 점점 저만의 색깔을 가진 보육교사가 되려합니다. (2017. 11. 25. 연구 참여자 16과의 심층면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명화들을 매우 적절하게 잘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과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층면담에서도 한 학생이 모네가 자신만의 화풍을 지니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 것처럼, 본인도 보육교사직이 힘든 일인 줄 알지만, 본인의 교육철학을 실현해보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2) 본인의 건강한 자아이미지 구축을 위해 현재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자아이미지

연구에 참여한 예비보육교사들은 미래의 건강한 자아이미지를 위해서 현재 구체적인 실천을 하겠다는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존감과 관련된 글을 읽겠다는 결심, 스트레스해소법을 찾고, 먼저 웃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 취미를 찾고, 자신을 알아보기 위한 일기쓰기,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기, 서점에 갈 때마다 동화책 읽기,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등으로 소소해보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자아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주도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지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육교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혹시나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교사가 되지는 않을지 항상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과 관련된 글이나 문장들을 컴퓨터에 많이 저장해두고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디 플래너를 이용해 공부계획을 세우고 점점 확장시켜나간 것처럼 '보육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므로써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나가고 싶습니다. (2017. 11. 27. 연구 참여자 13과의 심층면담)

명화를 분석하면서 지금껏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현장에서의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나의 현재의 이미지를 고르는 작업에서 얻는 것이 많았는데, 내가 스스로를 그다지 밝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의 자존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공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보육교사 일을 잘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종이접기 자격증, 풍선아트 자격증, 동화구연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 10. 30. 연구 참여자 18의 자아이미지 성찰지)

이 명화를 선택한 이유는 보는 순간 파란색의 색을 담은 그림이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책에 써있던 설명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중략 무대 뒤에서 수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발레리나들의 모습이 미래의 내가 바라는 보육교사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느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 그저 아이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옆에서 함께해주고 건강

하고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 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등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보육교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많은 노력 끝에 무대에 오르는 발레리나들처럼,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필수로 여기는 예비 보육교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보육교사로서 지식적인 부분도 필수적이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려한다. (2017. 12. 5. 연구 참여자 7의 명화분석지)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한 자아이미지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이미지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실천들을 성찰해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며, 훗날 이들이 보육현장에서 교사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외부에서 타인이 평가하는 이미지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실천을 통해 건강한 보육교사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미래에 만나게 될 보육교사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 자존감과 건강한 보육교사 이미지 구축에 동참하려는 자아 이미지

본 연구에서, 예비 보육교사들은 본인들의 미래를 상상하며, 더 나아가기 위한 다짐들을 표현하였다. 특히 개인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전체의 이미지 계고에 동참하고, 동료교사들과의 집단 자존감을 언급하는 연구결과에서 이들의 자아이미지가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의 미래의 보육교사이미지는 이 명화에서처럼 함께 걸어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 집을 공동운명체라고 봅니다. 공동운명체에서 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아이들과 동료교사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학부모들을 공감할 수 있다

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많은 업무로 인해 위축된 보육교사 이미지를 위해 보육교사들은 함께하는 노력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 11. 27. 연구 참여자 9와의 심층면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교사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싶고, 내가 직접만나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시선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까지도 바꾸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나의 작은 발걸음이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점차 나로부터 시작한 발걸음이 동료 보육교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 10. 30. 연구 참여자 16의 자아 이미지 성찰지)

저는 이번에 미래의 저의 자아이미지를 통해서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보육교사도 챙기고 제 자신도 챙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고민을 한 번 더 성찰하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고민들이 해결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육교사가 된다면 어린이집 행사들을 잘 준비해서 성취감을 동료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예회와 같은 행사를 아이들, 선생님과 함께 무사히 치루는 것 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잘 끝내고, 이로인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보육교사 모두 함께 노력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11. 27. 연구 참여자 9와의 심층면담)

황해익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이미지가 대중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교사가 지닌 교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비추어진 교사의 모습이 교사이미지로 형성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러한 선행연

구의 결과와 맥락지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보육교사들은 사회의 대중들에게 비추어진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육교사이미지를 함께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의 이미지 그리고 현재 자아이미지와 미래 본인들의 보육교사 이미지를 수업(명화 분석지, 조별토론, 자아이미지 성찰지)과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가 먼저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생각해 본 후, 현재 본인의 자아이미지를 성찰하고 나서, 미래의 본인의 보육교사 이미지를 생각해봄으로써, 스스로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예비보육교사들의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어서 이들의 입장에서 교사교육자가 수업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를 알게 되었다.

9가지의 연구결과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는 대중매체에서 보도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연구 참여자들 자신이 직접 체험으로 겪은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험들을 보육교사의 이미지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이루고 싶은, 본인의 꿈으로 간직한 다양한 보육교사 이미지들이 있었다(똑똑한 보육교사이미지, 영유아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보육교사이미지, 영유아의 순수함으로 인해 행복한, 영유아로 인해 즐겁게 웃는 보육교사의 이미지, 아이들에게 배우는 교사, 아이들의 정서적 환경을 지원해주고 꿈을 키워주는 교사).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자아이미지는 보육교사 직업선택에 대한 갈등, 자신감과 자존감도 낮아진 자아이미지가 연구결과로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현재는 나름 열심히 보육교사직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불안한 자아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결과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인 예비보육교사들의 미래의 자아이미지는 정말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희망을 갖고 보육교사직을 희망하는 자아이미지, 그리고 본인들의 건강한 자아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들(일기쓰기를 통한 자기내면 들여다보

기, 각종 자격증취득, 스트레스 조절관리, 감정 관리법 공부, 당당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 전공과목 열심히 공부하기, 체력 키우기 등)을 모색하는 자아이미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취업할 보육현장에서는 혼자자 아닌 동료교사들과 함께 건강한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자아이미지가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한 논의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보육교사의 이미지 구축과 관련된 논의의 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따른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아동복지를 전공해서 보육교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주변 지인들은 다들 왜 그 힘든 전공을 선택했냐고 되물으십니다. 순간 제가 갑자기 초라해보였습니다(심층면담)”라고 언급한 예비보육교사처럼, 타인의 인정과 시선이 인생의 여러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영향력이 발휘되는 SNS 세대의 예비보육교사들에게는 현재 아동학대 이미지로 점철된 보육교사 이미지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구 참여자들은 보육교사의 이미지로 보고하였다. 이는 신세니, 오정희(2016년)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교가 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신입생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선행연구와 달리 졸업과 취업을 앞둔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연구 참여자들이었으며, 특히 최근 2-3년 사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보도가 급증하였기에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이 시대가 보육교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한 윤리성과 책임감을 지닌 보육교사 양성과 함께 보육교사 이미지의 재 이미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혹시 보육교사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평가절하 되고, 스트레오 타입화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이 역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의 예비보육교사들이 직접 경험으로 갖게 된 보육교사이미지와 자신의 꿈으로 간직한 보육교사 이미지는 보도 자료에서 접한 보육교사 이미지와는 간극이 큰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었다. 또한 보육실습을 통해 보육교사를 관찰한 후의 이미지를 탐색한 이서영과 양성은(2017)의 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이미지를 “전문적인

교육자”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인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된 결과를 보여준다. 심층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본 연구의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교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자신들만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보육교사 이미지(똑똑한 보육교사 이미지, 영유아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보육교사 이미지, 영유아의 순수함으로 인해 행복한, 영유아로 인해 즐겁게 웃는 보육교사의 이미지, 아이들에게 배우는 교사, 아이들의 정서적 환경을 지원해주고 꿈을 키워주는 교사 이미지 등)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연구자는 이들의 잠재적인 능력과 희망의 가능성을 보았다. 예비보육교사들은 본인들이 자아이미지 분석에서 자신감이 없다고 하였지만, 연구자의 관찰결과를 이들은 다각적 방법들을(명화분석지, 조별토론, 자아이미지 성찰지, 심층면담) 통해서 본인들의 통찰력과 이해력을 드러내주었다. 어쩌면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이미 잠재해 있던 이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식 수업에서는 이를 예비보육교사 자신들이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론해본다. 무엇보다도 19명 전원은 자아이미지 탐색과정이 끝난 후에도, 연구자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업 후에 자존감 관련 책을 추천해달라고 질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역할로 인한 책임과 고충에 비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훈희, 황병순, 2015)을 알고도 왜 보육교사가 되려는 것일까? 교사교육자인 본연구자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만난 예비보육교사들의 이미지는 순수하고 착한 성정을 지닌 학생들이었다. 심층면담 중 한 명은 “보육교사론 수업에서 ‘우리는 교사이다, 교직원이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인식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들의 바램은 보육교사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쉬운 직업’(최은정, 곽은순, 2017)으로 치부하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개선되어지고, 더불어 보육교사는 ‘아무나 해서도 절대로 안되는 일’이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보육교사양성과정인 대학교육에서 강조하여 가르쳐주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은 현재 자신의 자아이미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피상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명화를 통해서 자아이미지를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되었다. 이는 유아 예비교사의 교사이미지 탐색을 위해 저널쓰기(박영미, 이순자, 2014), 교사자화상 그리기(김정원, 조혜선, 2012), 유아예비교사의 메타포 활용을 통한 전문성 함양 연구(유승연, 2013) 등의 선행연구에서 새로운 매개체(Shank, 2006; Thomas & Beauchamp, 2011)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과 맥락지어 볼 때, 본 연구도 새로운 경험(명화분석 작업)이 추상적 사고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서 중요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은 현재의 자아이미지 분석 작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갈등과 방향,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졌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보육교사로서 미래를 위한 자신의 자아이미지 구축에 역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육교사 이미지로 구축해나가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불안해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갈등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대안을 찾아서 실천해나가면서 동료교사와의 협조를 통해 건강한 교사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로는 스스로 자아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모습과 더불어 조별토론을 통해서 현재 갈등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진 자아이미지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고, 예비보육교사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점이다(참여관찰과 연구자 저널). 본 연구자는 연구의 분석 과정 중에 왜 예비보육교사들이 ‘미래에 만나게 될 보육교사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 자존감과 건강한 보육교사 이미지 구축을 함께하는 것’을 본인의 미래의 자아이미지로 많이 언급을 했을까 그 원인이 궁금했었다. 이 결과는 맥락없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조별토론을 통해 지금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될 동료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통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장과 소통을 위해 예비교사들이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안소영(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예비교사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교수자의 교수방법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연구분석을 위하여 명화분석지, 자아성찰지와 조별토론지 등의 내용을 반복과 반복을 거듭해서 읽는

동안 강의를 수강하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상황을 알게 되었다. 예비보육교사들의 현재 자아이미지는 보육교사직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거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하락된 자아이미지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불안한 자아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교사교육자인 본 연구자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예비교사들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교사교육자가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수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후 보육교사론 수업과 아동미술 수업에서는 자존감과 관련된 학습활동을 수업의 내용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론 과목의 경우 수업설계를 재설정해야 했다. 보육교사론 수업을 진행 하면서 교재에서 다른 보육교사직의 전문성을 단순히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교재의 내용들을 필기시험으로 채점하는 평가방식만으로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꼭 배워야 할 능력을 배우기 어렵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핵심내용에 대한 강의와 함께 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비보육교사들이 직접 깊이 숙고하고 실천 방안을 찾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업적 상황을 제공해야하는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는 연구들은 주로 보육실습을 경험한 전과 후에 관련된 연구들(김정원, 조혜선, 2012; 이서영, 양성은, 2017)로, 보육실습경험 이후 보육현장을 직접 체험한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가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점은 보육실습을 경험하기 전에 예비보육교사들이 본인들의 보육교사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과정을 갖는다면, 실제 현장에서 본인들이 보완해야 하는 측면에 대해서 실습지도교사와 실습현장에서 보육교사 이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인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존중해주며 이로 인해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교사교육자의 역할이었다. 노승희와 이영진(2017)의 연구에서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교수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존중을 받은 교육 경험은 훗날 현직교사가 되었을 때 교수실제에서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p. 92)”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교사교육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

다. 또한 자신감은 예비보육교사가 보육교사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들(조준오, 송주연, 김윤희, 2011; 하지영, 김양은, 2016)의 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교수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은 연구 참여자들이 조별토론에서 서로의 문제점과 새로운 통찰을 자신감을 가지고 나누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르침과 돌봄이 핵심어가 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를 교사교수자인 연구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보육교사들을 위한 직전교육 수업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교사교육자는 수업을 수강하는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교사직 선택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 조사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주제(예를 들자면, 보육교사직의 전문성 탐색 혹은 보육교사의 자존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져올 수 있는 조별 토론을 하고, 이후 개인 사례발표 혹은 선배(신임 보육교사 1-2년차 선배)의 멘토링 특강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한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교사 가치관에 관한 개인 보고서에 개별적인 피드백을 전달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자신감과 실천적 역량 그리고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수방법들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교 3학년, 4학년들이 대상이었다. 본 연구를 대학교 1학년의 보육교사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시점과 교사교육과정을 마치는 시기인 4학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실행하여, 자아이미지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 외에도 보육교사의 이미지 발달을 촉진 할 수 있는 현직 보육교사와의 직접 인터뷰, 존경받고 있는 보육교사 초청 강연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실행하여 보다 정교한 실천학습을 통한 현장 연구로 발전시켜서 그 결과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가 예비 보육교사에게만 나타나는 연구결과인지 아니면 현장의 보육교사의 자아이미지와도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앞에서 제시한 점들이 보완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글은 예비보육교사와의 심층면담에서

연구자가 예비보육교사에게서 배운 내용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사교육과정 중에 있을 또 다른 수많은 예비보육교사들과도 본 연구의 결과들을 수업시간에 함께 나누는 일이, 본 연구가 연구자에게 남겨준 의미있는 과제로 여겨진다.

“보육교사가 제 꿈이지만, 저는 이 꿈을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 꿈을 살고 있어요.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제 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유아를 좋아하는 일이 제겐 노력해야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저의 재능인 것 같아요. 저의 적성이죠. 나보다 약한 존재를 배려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지는 걸 어린이집에서 봉사하면서 느꼈어요.”

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한 예비보육교사의 건강한 자아 이미지가 담긴 말이다. 그리고 교사교육자인 본 연구자가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할 교훈이다.

참고문헌

- 강문숙, 김두규(201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비교사들의 영유아, 교사, 원장에 대한 이미지 분석; 보육실습 전과 후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3), 43-65.
- 국립국어원(2018). 이미지. <http://www.korean.go.kr>에서 2018년 3월 13일 인출.
- 김대욱(2014). 유아교육과 남자 신입생이 인식하는 유아교사 이미지 변화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8(2), 313-337.
- 김나림, 광경화(2013).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에 대한 이미지와 갈등의 변화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4), 277-304.
- 김병만, 김미진(2013). 유아교사의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 분석; Q-방법론적 접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239-262.
- 김양은, 하지영(2015). 예비보육교사의 다짐으로 본 보육교사 상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577-599.
- 김은아(2017). 예비유아교사가 생각하는 유아교사의 이미지 및 역할기대분석-신입예비유아교사를 중심으로. **열린 유아교육연구**, 22(6), 143-168.
- 김정원, 조혜선(2012). 보육실습 전·후 예비보육교사의 교사 이미지 변화: 교사-자화상 그리기와 심층면담을 통한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1-19.
- 김정주, 윤정진(2011). 여고생이 인식한 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 유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83-207.
- 노승희, 이영진(2017). 반성적 저널쓰기와 피드백을 통한 예비보육교사의 강의 수강 경험 의미와 교수자의 교수방법적 의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75-101.
- 류철선, 이성희(2005). 한국과 독일 유아교사의 교사이미지 평가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6), 137-155.
- 박영미, 이순자(2014). 저널쓰기르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이미지와 이상적 유아교사이미지 탐색. **육아지원연구**, 9(3), 51-72.
- 박은주(2016). 예비보육교사의 적성이 보육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1), 163-182.
- 박은혜, 조운주(2007).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교사 이미지의 변화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1(4), 225-246.
- 손원경, 김미진(2016). 일반인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 **한국영유아보육학**, 98(5), 89-112.
- 서현, 이승은(2013).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한 유아교사 이미지. **한국보육학회지**, 13(3), 223-240.
- 신건호(2007).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교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6(3), 35-46.
- 신세니, 오정희(2016). 신입생 예비보육교사들이 인식한 보육교사와 원장의 이미지. **교육혁신연구**, 26(2), 109-131.
- 오선영, 이옥임(2006). 예비보육교사의 현장적응과 변화과정 연구-사전실습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6(2), 139-156.
- 안소영(2012). 소그룹 토의와 저널쓰기에 중점을 둔 예비 보육교사교육에서 예비 교사가 경험하는 배움의 과정. **한국보육학회지**, 12(3), 39-61.
- 안소영(2014). 예비 보육교사교육에서 예비교사가 구성한 가르침의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237-260.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 연구의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승연(2013). 유아예비교사의 메타포(metaphor) 활용을 통한 전문성 함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241-276.
- 유지영(2004). 교사의 자아이미지와 교수 효과성과의 관계.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윤숙현(2009). 보육시설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전후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3), 41-67.
- 이서영, 양성은(2017). 보육실습을 통한 예비보육교사의 교사, 아동, 부모에 대한 이미지 변화 및 진로 선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53-66.
- 이훈희, 황병순(2015). 보육시설 이용부모가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3), 5-28.
- 정명숙, 황해익(2010).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 **아동학회지**, 31(3), 67-82.
- 조용환(2004). **질적 연구의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준오, 송주연, 김윤희(2011). 예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5), 55-75.
- 조형숙, 김정숙(2011). 유치원 교사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407-428.
- 하지영, 김양은(2016).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보육교사직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보육학회지**, 16(3), 1-26.
- 황해익, 김미진, 김병만(201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교사의 이미지 연구. **아동학회지**, 33(5), 201-219.
- 최은정, 곽은순(2017). 신문과 TV뉴스에 나타난 보육교사의 신뢰이미지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6), 95-117.
- Berthelsen, D., & Brownlee, J. (2007). Working with toddlers in child care: Practitioner' beliefs about their ro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3), 347-362.
- Minor, L. C., Onwuegbuzie, A. J., Witcher, A. E., & James, T. L. (2002).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and their perceptions of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6(2), 116-127.
- Ng, W., Nicholas, H., & Williams, A. (2010). School experience influences on pre-service teachers' evolving beliefs about effective teach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 278-289.
- Shank, M. J. (2006). Teacher storytelling: a means for creating and learning within a collaborative spac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2(6), 711-721.
- Thomas, L., & Beauchamp, C. (2011). Understanding new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ies through metaphor.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7(1), 762-769.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Image of Childcare Center Teachers and Self-image

Hea young Ya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o develop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 about the image of childcare center teachers and self-image. In this study, participants' self-analysis method and in-depth interview were adopted to analyze the aspects of pre-service teachers' teacher image. Also, the narrative of pre-service teachers' a famous painting analysis were repor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nine categories. Finding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self-image analysis work made pre-service teachers more enabled them to expend the significance of teacher's image of role in relation to their career decision and future their teacher's job. Moreover, through the experience of self-analysis work the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 their own ability to build up unique and healthy image. To foster the ability of pre-service teachers' self- image, special class teaching methods for pre-service teachers should be developed focusing on evoking them to have more positive self-image. This study suggested that self-image analysis work experiences should be emphasized in university class for pre-service teachers.

Received April 29, 2018

Revision received May 22, 2018

Accepted June 21, 2018